

손이 기형(奇形)이라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기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염려 다음에는 흔히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10개씩 맞는지 물어보고 헤아려 본다. 우리 몸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10개씩 되는 것은 손과 발 이외에는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서인지 손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한 기형에서부터 팔이 짧든지 손가락이 없는 심각한 변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의 기형에 대해 알아보자.



임산부가 임신을 알기 전인 태생 6주경에 이미 태아의 손이 될 조직들이 병어리 장갑 같은 형태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8주가 지나면 여기에 여러 개의 홈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적당한 길이로 갈라져 손가락이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선천성 기형들이 만들어진다.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임신 중 약물 복용이나 술, 흡연, 대기 오염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심장이나 두개골 등의 선천성 기형과 같이 복잡한 기형 중에 일부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손의 기능과 미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태아가 손의 기능과 모양이 정상적인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장 흔한 손의 선천성 기형들에 대하여 적절한 수술시기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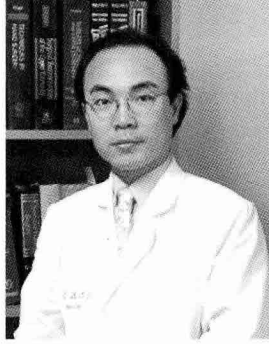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선천성 수지 기형은 합지증과 다지증이다.

합지증(오리손 혹은 물갈퀴손)

손가락이 분리되지 않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손가락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오리손, 물갈퀴손이라고도 하며 다지증과 함께 손가락의 선천성 기형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기형이다. 양측인 경우도 비교적 흔하며,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발가락에도 잘 생긴다.

(1) 원인 :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태생 6주경에 수판(Hand Plate)에서 손가락이 될 5개의 융기(Ridge)가 형성된다. 이것을 수지아(Digital bud)라 부른다. 이 수지아들이 수판에서 자라 나와 태생 6~8주에 정상적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손가락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합지증이 초래된다.

(2) 빈도 : 손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으로, 2천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며 남자에 많다. 연부 조직만 합지



김 주 성 원장

現 대구현대병원 병원장

약력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초빙교수, 대구경북병원회 재무이사, 대한수부외과학회 평의원,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학술이사, 아시아태평양 수부외과학회 부회장, 세계수부외과학회, 국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골절학회 정회원, 영진전문대학 겸임교수,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 전국통신기자협회 이사장, (주)텔레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주)이호스피탈코리아 대표이사, (주)엠에스엔티 대표이사

된 단순형, 뼈가 함께 합지되고, 신경과 혈관, 건의 이상을 동반한 복잡형이 있다. 15~40%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3) 치료 : 수술로 붙어 있는 부위를 분리시킨다. 발가락 합지증보다는 손가락 합지증을 수술해준 경우 모양이나 기능이 더 호전된다. 수술 시기는 기형의 복잡성이나 관련된 부위에 따라 다르며, 대개는 1세 이전에 해주는 것이 좋으나 손의 기능을 알 수 있는 2세까지 기다려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수술의 목적은 완전히 독립된 손(발)가락으로 분리해 적합한 손(발)가락 사이를 만들고, 성장함에 따라 구축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수술은 간단히 분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리 후 피부 이식 등으로 조직이 모자라는 부위를 채워주어야 한다.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입원이 필요하며, 기간은 2~3일 소요되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두 곳 이상이 붙어 있다면 2~3차에 나누어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지증(흔히 육손이라고 부른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더 생겨서 6개 혹은 그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육손이라고 하며, 합지증과 더불어 손에 생기는 선천성 기형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1) 원인 : 합지증보다 유전성이 강하고, 상염색체성 우성 유전을 한다. 다지증은 수지의 분화가 중복되어 생긴다.

(2) 빈도 : 4백 명 출생 중 1명꼴로 발생하며, 엄지나 소지 옆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어느 손가락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치료 : 수술로 여분의 손(발)가락을 제거하며, 수술 시기와 방법은 기형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낳자마자 끈 등으로 잡아매기도 하고, 잘릴 손(발)가락 조직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12월 사이에 수술이 가능하다. 복잡하여 어느 정도 성장해서 기능을 확인한 후 제거해 버릴 과잉지의 건, 인대와 골을 이용해서 남아 있을 손(발)가락을 정상에 가깝도록 재건할 경우에는 6~12개월 이후에 수술하는 편이 좋다. 

(문의 : 현대병원 053-764-2000~9, <http://hyundai.e-hospitalkorea.co.kr>)